

# 엔터테인먼트

## Entertainment

### 세계적인 모델 고메즈

#### 테이 뮤비 노개런티 출연

테이(본명 김효정·25)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세계적인 모델 제시카 고메즈(23·사진)가 '노개런티'로 출연했다.



테이의 소속사 측은 "13일 발매될 테이의 5집 타이틀곡 '새벽 3시' 뮤직비디오에 고메즈가 출연했다"며 "4일 경기도 양평의 오픈 세트장에서 촬영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촬영 전 테이의 노래를 들은 고메즈는 멜로디와 테이의 음색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인 어머니와 스페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호주 출신 모델 고메즈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카탈로그의 모델로 활동하며 뉴욕의 '핫 피플'로 떠올랐다.



<고영욱>

<김창렬>

<신동욱>

가요계에 빅뱅,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아이돌 그룹이 인기라면 예능계에서는 90년대 댄스그룹 출신의 30~40대 '아저씨돌'(아저씨+아이돌)의 활약이 눈부시다.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얻으며 전성기를 누렸던 '한물 간' 일로 10대 그룹 R.ef의 성대현, 롤라의 고영욱, 구피의 신동욱, 그리고 DJ DOC의 이하늘 등이 그 주인공이다.

90년대는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들만큼 바빴던 이들은 지난 6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함께 출연해 '한물 간' 가수들의 후일담을 유쾌한 입담으로 풀어내 2000년대 '예능 감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또 지난 9월부터는 메인 MC로 케이블 채널 tvN의 대형 버라이어티 '180분'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반응을 알아보는 '더 폰'(The Phone)의 진행까지 맡고 있다.

성대현은 1995년 R.ef로 데뷔해 '고요속의 외침' '이별공식' 등의 히트곡을 냈지만 1998년 그룹이 해체됐고, 2000년 발표한 솔로 앨범이 실패하자 연예계를 떠났다.

하지만 얼마전 종영한 KBS '해피선데이-불후의 명곡' '좋은나라 운동본부', 케이블 채널 ETN의 '데스노트'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5년 '전상유예'로 표절논란에 휩싸인 후 활동을 중단했던 롤라의 고영욱 역시 성대현 못지 않게 여러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신동욱이 활동했던 구피는 1996년 '많이 많이'로 데뷔, '비련' '게임의 법칙'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2005년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했지만 그룹 H.O.T에 밀려 단 한번도 1위를 못했던 비운의 그룹.

신동욱 역시 고영욱과 함께 케이블 채널 M.net '러브라이터' 등 각종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또 오는 29일에는 여성 보컬을 새롭게 영입해 '구피'로 다시 가요계에 컴백할 예정이다.

한동안 TV에서 볼 수 없었던 DJ DOC의 멤버 이하늘은 최근 MBC '놀러와', 명랑 히어로 등에 고정 출연하면서 '예능계의 사고뭉치'에서 허슬하고 편안한 아저씨 예능인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하늘과 함께 DJ DOC의 멤버인 김창렬 역시 올리브TV의 '연애불변의 법칙-커플 브레이킹', tvN의 현장토크쇼 '택시'를 여러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MC로 맹활약중이며 최근에는 KBS '사이드'에서 지식진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연예계의 이같은 현상은 TV 시청자들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대로 보주는 리얼 버라이어티형 예능이 인기를 얻으면서 시작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KBS 예능팀의 한 제작진은 "40, 50대 시청자들에게 젊은 시절 봤던 스타들의 모습이 친숙하면서도 10~20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며 "제작진 입장에서는 최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비슷비슷했지만 이들의 등장으로 출연자의 선정폭이 넓어졌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7집 발표하는 백지영 더 깊어진 음색으로 가을 유희

백지영(32)이 성대 수술 후 새로운 목소리로 7집 '센서빌리티(Sensibility)'를 이달 중순 발표한다. 이번 음반에서는 새로운 백지영을 찾기 위한 '변화'와 그간 팬들에게 사랑받은 장점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변화를 위해 영입한 프로듀서는 유명 작곡가 방시혁 씨.

7집 타이틀곡은 다소 과격적이고 지실적인 제목의 발라드곡 '총 맞은 것처럼'으로 방시혁은 동양적인 서글픈 감성에 서양의 비

트가 어우러져 '모던 신파'라는 이름을 붙였다. 실연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공감할 후렴구 가사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 넘쳐~'는 슬픈 감성에 모던 록 풍의 피아노와 슬픈 오케스트라가 이어진다.

'돌아와죠'는 '사랑 안해', '사랑 하나면 돼' 등 전작의 뒤를 잇는 곡이며, 가수 네 임이 작곡한 노래 '여자들만 아는 거짓말'과 영국 록 밴드 사운드를 가미한 '그대의 의자' 등 백지영의 깊어진 음색을 느낄 곡들도 많다.

또 백지영의 히트 댄스 넘버 '부담', '대시(Dash)' 등의 노래를 사랑해 준 팬들도 간과하지 않았다.

하우스 일렉트로니카 계열의 비트 위에 그루브가 강한 '입술을 주고', 어반 힙합 풍의 '고(Go)!', 시부야 케이 스타일의 경쾌한 곡으로 마이티 마우스가 피쳐링한 '멜로디', 라틴 하우스 풍의 '센티멘털 시티(Sentimental City)' 등 댄스곡 범주 안에 다양한 장르를 녹여냈다.

/연남뉴스



## 11 BOX OFFICE

영화 (단위: 원)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아내가 결혼했다	32만9천591	109만3천733
2	이글 아이	18만6천719	205만490
3	뱅크 잡	18만5천527	21만1천645
4	비디오 라이즈	13만2천732	47만4천59
5	말미아	6만8천999	433만2천591
6	플라이 미 투 더 문	5만5천59	5만8천338
7	굿바이: Good & Bye	4만6천267	6만6천186
8	미쓰 홍당무	3만97	50만6천650
9	너를 잊지 않을 거야	2만6천122	3만1천614
10	화피	2만4천222	13만6천493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나는 내운명	KBS1	31.5
2	예전의 동쪽	MBC	24.4
3	일요일이 좋다 1부	SBS	23.1
4	내사랑 금지옥엽	KBS2	22.4
5	우리의 성	SBS	20.4
6	베토벤 바이러스	MBC	18.1
7	무한도전	MBC	17.9
8	9시 뉴스	KBS1	17.5
9	머느리와 머느님	SBS	17.1
10	가문의 영광	SBS	17.0

(자료제공: 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아이언 맨	SF
2	인디애나 존스: 크리스탈해골의 왕국	액션
3	인크레더블 월드	액션
4	강철중: 공공의 적 1-1	액션
5	고사: 피의 중간고사	공포
6	눈에는 눈이에는 이	액션
7	적벽대전: 거대한 전쟁의 시작	액션
8	88분	드라마
9	장강 7호	코미디
10	21	드라마

(자료제공: 오픈과 베크)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노바디	원더걸스
2	아저씨보다 오늘 더	김종국
3	러브 스토리	비
4	아재다	브라운아이드걸스
5	레이니즘	비
6	주문-MIRO TIC	동방신기
7	미쳤어	손담비
8	1분초	예픽아이
9	허우허우	빅뱅
10	드리나오	소녀시대 태연

(자료제공: 멜론)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침단 3,000명**

# OPEN 동

# 14 (금)

11월 14 (금) **장윤정**

15 & 16 일

조항조

17 & 18 일

승대관

20 & 21 일

최진희

25 일

박현빈

27 & 28 일

김수희

4 & 5 일

서윤두

광주침단 · 폭스존 열 **나이트**